

citizenship, democracy and human rights/gender-equality as such; critical teaching method, curriculum reconstruction, and multicultural sensitivities of teachers are needed as a working condition in schools. In the meantime, EIU based on the recommendation declared in UNESCO Assembly in 1974 was composed of people's right to equality, peace maintenance, antiracism/human rights, de-colonialism, sustainable development, conservation of human cultural heritag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contents to be taught in schools; these contents are to be dealt by critical teaching methods based on solidarity of the social vulnerable. UNESCO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has developed a comprehensive model of EIU bringing five columns, which are multi-culture, globalization, human rights,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IU seem to have interconnection with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in their meanings and directions, coping with issues from the diverse educational context. Therefore the interests of the social vulnerable groups need to be reflected in those two ethical educational agenda towards the culture of peace and human rights.

Key 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다문화 시대 국제이해와 중국동포와의 교육 협력

이진영*, 김판준**

요약

다문화 시대로 이행하는 한국의 국제상호이해 교육에서 동포에 대한 상호이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글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2009년 현재 한국으로 온 외국인 이주자의 40% 정도가 동포 이주자들이다. 특히 2007년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도는 매년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 3만 5천여 명의 입국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동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한국으로의 이주민 중 동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다문화 사회 내에서 한국계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 통합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에도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의 다문화 논의는 먼저 동포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동포와의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동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교육이 없이 어떻게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또한, 이런 네트워크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세계화 시대에서 단일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세계화의 성격이 주는 다양성을 능동적으로 적용하고, 좀 더 적극적인 다양화와 다원화의 첨병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로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와 중국동포와의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꼽고 있다. 중국 내의 중국동포(조선족)와 한국인과의 상호 이해는 물론, 한국과 중국 간의 상호 이해에서도 동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중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동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접근은 상호이해 교육을 통한 동질성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와의 상호 협력적 관계는 다언어 다문화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조선족 사회의 교육 기반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축의 교육체계이다. 즉, 교류의 성격을 네트워크 구축을 축으로 하는 다양한 방식의 기반 공유 교류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지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 교사 모국 연수나 학술대회 참가, 교육 물자 지원 등이 우호적 교류 협력망으로 이어져 중국 조선족 사회와의 교류 협력 발전 원천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동포에 대한 상호이해 교육은 한국 다문화 교육에 있어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여러 교류·협력 모델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다문화사회, 국제이해교육, 중국동포, 교육 네트워크, 동포 정책

I. 다문화 사회의 대두와 동포에 대한 상호 이해 교육

1. 한국 사회의 다문화로의 이행과 교육

한국의 다문화 사회는 세계화시대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의 증가로 나타난 현상이다. 세계화(globalization),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지역주의(regionalism) 등은 90년대 이후 세계정치에 나타난 큰 특징이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는 세계를 더욱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면서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의 거리를 더욱 좁게 하였다. 90년대 이후 세계화 시대에서 특히 두드러진 점은 국경을 넘어선 인간 이주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범위한 인간 이주의 결과 인간 상호간 접촉이 확대되고, 상호간의 학습이 증대하면서 외국인에 대해 경험이 없던 사회에 새로운 도전이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의 이주가 국민 간, 민족 간, 문화 간, 정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중요한 분쟁의 원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인간 이주는 한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2007년 한국은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기록하였다. 특히 21세기 들어 지난 10년간 다문화 가정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이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심과 시각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농촌의 새로운 결혼에서 4쌍 중 한 쌍이 외국인과의 결혼이며,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 중 약 15%가 외국인과의 결혼이라는 통계의 제시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가 가지는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¹ 최근 한국에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의는 학문적 토론, 정책적 검토 및 법제화를 넘어, 사회적인 의제화

1 한건수, “비관적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모색을 위한 인류학적 성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임,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전망』(동녘, 2007), 139쪽.

로 이행되는 등 가히 붓물이 터진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의는 가히 유행syndrome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로의 이주가 다문화에 대한 국내적인 측면이라면, 이 이주는 국제적 관심과 개입을 불러일으켰다. 2007년 8월 18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한국이 실제와는 다른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²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당사국(한국)이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영토 내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 국가 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순수혈통’과 ‘혼혈’과 같은 용어와 그에 담겨 있을 수 있는 인종적 우월성의 관념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는 데 유의한다”고 충고하였다. 또한, 2006년 한국 정부가 제출한 통합 이행보고서를 놓고 심사를 진행한 뒤, 위원회는 27개항의 결과 보고서라는 형태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 권고문은 한국의 교육 과정, 법적 제도, 사회적인 인식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교육, 문화, 정보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 내에 사는 모든 인종, 민족, 국가 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을 위한 인권 인식 프로그램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 국가 그룹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들을 초·중등학교의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밑줄 필자)”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법적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인종 차별의 정의를 조약의 관련 규정에 맞게 헌법이나 법률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이주 노동자와 혼혈아 등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제거하는 한편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출신자들이 조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동등하고 효

2 조선일보, 2007.8.20. 유엔의 한 기구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는 강제력이 있지는 않으나, 국제적인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하 보고서라 칭함.

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조약 관련 규정에 따라 인종적인 동기에서 저질러진 형사 범죄를 금지, 처벌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들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인 개선 요구뿐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부분까지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인종 차별 행위들을 처벌하는 데 활용 가능한 현 형법 조항들이 한국의 법정에서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것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면서, 그 배경으로 관련 법제의 미비 외에, “법적 구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기소 당국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관, 변호사, 검사, 판사를 포함해 형사 사법 체제 내에서 일하는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제공할 것(다문화 교육: 밑줄 필자)”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즉, 한국 사회에서 인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2. 다문화 사회에 대한 확산적 이해의 필요성

이런 다문화로의 이행과정에서 2007년부터 다문화시대의 상호 이해 교육과 연관된 여러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다문화와 연관된 한국 사회의 교육쟁점은 다문화교육이라 할 수 있는데,³ 다문화 교육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결혼가정(혹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입학상담이나 한국어 및 전통문화 교육 등의 학습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종교계가 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특별학급이 설치되기도 하는 등 민간단체를 중

3 국제이해교육과 관련은 김현덕,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관계정립을 위한 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제2호(2007.11) 참조.

심으로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법률 서비스가 이루어져 왔다.⁴ 그러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과 지원 미흡,⁵ 학교중심의 다각적인 관련시책 부진 등이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2007년 교육부에서는 “지금까지 교육청이나 대학 등 개별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을 국가의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사회의 흐름은 다문화의 이행 및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국내적 차원에서,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범주로 이주민을 범주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한국에서의 이주가 순수한 외국인보다는 한민족 출신의 외국 국적 동포의 이주로 시작되었고, 여전히 그들이 한 중심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포마저도 일반적인 외국인의 시각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⁶

세계화 시대 한국에서의 이주는 그 특징으로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외국인 유입이라는 현상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단순히 유입규모에서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측면에서도 나타났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외국 노동력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노동이주가 한국 사회에서 90년대 전개되지만, 순수한 외국인 노동력은 제한적이었고, 정책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

하였다. 오히려, 동포에 대한 처우와 대우 문제는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자극하였고, 그 결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여러 정책이 취해지는 등 한국에서의 이주에 관한 정책은 동포정책에서 시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2009년 6월말 현재 중국동포로 칭해지는 조선족은 37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외국인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중국 동포(조선족) 사회는 한국 사회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한국 사회에서 중국인으로 칭해지는 한족과도 구별되고 있다. 이렇게 문화적 스펙트럼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는 구분되지 않고 일반적인 다문화의 범주에서 접근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와 그에 따른 다문화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인들과 혈연을 나누고, 언어적, 정서적, 여러 소질을 공유한 동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외국인에 대한 상호 이해가 가능한가? 바로 우리 주변의 근거리에 있는 외국인이라 할 동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 일반 외국인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다문화에 대한 접근 중 또 다른 한 특징은 시각 자체가 국내적인 폐쇄성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 중심으로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외국인을 타자화하면서 접근하고 있다. 물론, 외국인들은 이주자로 한국에 들어와 여러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모국과도 소통하고, 한국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언제든 이주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이주민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이주민들의 중심에는 동아시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과반수가 넘는 중국인을 제외하더라도, 일본, 몽골, 동남아시아인을 포함하면, 지난 10년간의 한국으로의 이주민의 80%가 동아시아인이다.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7년 특별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주제로 협동연구를 실행하였다. 총 7권으로 이루어진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5 인하대학교 이주 및 재외동포센터는 2009년 5월 26일 『인천다문화포럼』에서 인천의 다문화 정책과 제도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중앙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다문화 정책의 통합 추진과 제도화의 방향,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이주민 분포에 따른 시책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다.

6 이진영, “다문화 다민족 한국 사회와 중국동포” 이민행정연구회 M. Paz 워크숍 자료집, 이민행정에 관한 연구 (2008.12), 77~84쪽 참조.

표 1 등록 외국인 국적별 현황⁷ 2009.6

국적	중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필리핀	미국	타이	기타
체류자수	122,407	375,142	83,834	39,027	30,001	28,788	193,336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이주와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동아시아 요소는 그리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이미 동아시아에서의 인간 이주는 그 개인과 사회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자 영향을 주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 이주는 한 사회와 그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보와 연관되고, 그 연관성이 그 사회의 내부문제가 아닌 국경을 넘어서서 국제문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베트남 신부에 대한 타살과 그에 따른 베트남의 반한 감정의 분출과 같은 사례이다. 즉 인간 이주는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닌 동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기제로 작용하도록 시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다가오는 다민족 다문화 동아시아에 있어 이주에 대한 적절한 처리와 협력이 동아시아 협력의 한 방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3. 동포의 이주와 다문화 사회 속의 상호 이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서 각국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족(marginalised ethnics) 즉, 그 나라의 소수 민족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재일 한국인, 재중 조선족, 한국의 화교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해당 정부의 정책은 그 국가의 다문화와 민족주의에 대한 사고의 방향과 함

7 등록 외국인 지역별 현황 - 09년 6월말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자료실 참조.

께 인권에 대한 지표로도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소수민족은 모국과의 연계 가능성 때문에 민족적인 분류에서 항상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중국의 조선족, 일본의 조선인, 대만인,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정책, 한국의 화교에 대한 정책은 상호 연관되어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이며, 비교 연구를 통해 자국의 소수 민족 문제를 의제화하여 상호 긴장과 갈등을 약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호 긴장 완화는 신뢰성의 증대에 당연히 영향을 준다.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사회의 다문화주의의 대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민족의 이주 양상이다. 한민족의 일원인 한국인은 중국에 이미 80만 명이 진출하여 있고, 또 다른 한민족의 일원인 중국의 조선족도 특히 이주와 연관이 깊다. 즉, 200만 중국 조선족 중 이미 60% 이상인 120만 명이 자신들의 원 거주지인 동북의 농촌 지역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37만 명을 필두로, 일본 5만, 미국 7만, 러시아 3만, 중국의 연해 개발 지역 및 내륙지역에 40여만 명, 그리고 동북 3성의 대도시에 20여만 명이 이주하고

표 2 러시아 연해주의 한민족 분류 (2000년 기준)

명칭	기원	수	이주 시기	주요 직업
고려인 1	19세기 이래 원거주자	33,000	19세기/1957	다양
고려인 2	사할린에서 이주자	n.a.	1957~1970~	다양
고려인 3	중앙아시아에서 이주자	19,000	1990~	농업, 상업, 건설
북한인 1	공관 및 상사, 노동자	4,000~12,000	1946~48, 1990~	다양, 목재, 건축
북한인 2	탈북자	500~1,000 이하	1990~	탈출자, 난민
한국인 1	한국 공관, 상사, 종교인	2,000 이하	1991~	상사, 종교
한국인 2	타 국적 한국계	200 이상	1991~	상사, 종교
조선족 1	연변조선족 자치주	500 이상	1990년대	시장, 서비스
조선족 2	흑룡강 등 기타	300 이상	1990년대	대리인, 보따리

출처: 여러 자료로 작성, 주로 추정치에 근거함.

있다.⁸ 중국 내의 조선족은 이주지역에서 한국인들과 같이 공동체의 일부로 혹은 이웃으로 살고 있다. 일례로, 러시아 연해주의 상황을 보면 한민족의 이주가 가져온 내부적인 민족분포를 알 수 있다.

러시아 연해주의 최소 아홉 종류의 한민족 분류는 러시아 연해주의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양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양한 한민족 상호간의 관계가 다문화 사회의 한 양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한민족 구성원들은 단지 국적 뿐 아니라 살아온 역사에 따라 사회 경제 배경 및 언어 문화 등의 향유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으로, 이들이 러시아의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 간의 다문화적인 관계 역시 중요하다.

한국에서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전술하였듯이 한국으로 온 외국인 이주자의 40% 정도가 동포 이주자들이다. 특히 2007년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도는 매년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 3만 5천여명 입국을 전제⁹로 하고 있으며, 동포의 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듯 한국으로의 이주민 중 동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다문화 사회 내에서 한국계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 통합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에도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의 다문화 논의에는 동포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며, 거기에는 동포와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동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교육이 없이 어떻게 다문화 교육이 이

루어질 수 있겠는가?

특히, 이런 네트워크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세계화 시대에서 단일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세계화의 성격이 주는 다양성을 능동적으로 적용하고, 좀 더 적극적인 다양화와 다원화의 첨병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느슨한 형태의 산개한 소수민족 계열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라는 개인적 특성 속에서 새로운 집단성의 단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특히, 가난과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항시 주변부에 위치해 있던 대다수의 소수민족들에게 적극적인 의미의 네트워크는 그들을 주변에서 중심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한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다양한 국적(대한민국, 북한, 이중국적, 일본, 중국 국적 등등), 그리고 법적 지위에서 차이가 나는 집단들(귀화 재일교포, 미귀화 재일교포, 조선족과 조교 등), 언어의 습득에서의 차이(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이제는 이름마저도 다른(귀화교포, 입양아 등) 경우를 보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분산 거주하며, 관습에 있어서는 상당히 현지화하여 현 대한민국의 관습과는 판이한 해외한인의 경우도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다양화 된 해외교포를 총칭하는 네트워크의 형성은 소수민족뿐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 사회의 형성과 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열린 개념은 국적, 언어, 관습, 지역의 차이를 인정하는 각 개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경계를 넘어 개인의 관심에 따라 이합 집산하는 수많은 공동체에 대한 상호 이해와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상호 이해 교육은 정태적 개념이 아닌,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동태적 개념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새로운 동아시아 아이덴티티의 형성이라는

8 중국 조선족 인구 이동 관련 자료의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박광성의 박사학위논문인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노동력이동과 사회변화”, (2006.8), 1~6 참조. 또한, 이민행정연구회 제 4차 M.paz 정기포럼에 실린 박재석의 “방문취업제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 (2008.12), 43~56 참조.

9 방문취업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하대학교 이주 및 재외동포센터 편, 방문취업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동포 만족도 조사 (2008.10.31) 참조.

장기적인 과제를 설정한다. 따라서 각 국에서의 이주민과 소수민족에 초점을 둔 새로운 형태의 레짐regime 형성이 필요하고, 한국에서도 동포 이주민 및 중국에 있는 동포들과의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새로운 상호 이해와 동아시아 다문화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이주의 범위가 가장 크고 넓은 중국 동포와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조선족의 이주와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1. 조선족의 이주와 한국인의 중국 이주

2000년 실시된 중국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약 192만 4천 명의 조선족 인구 중, 흑룡강성 38만 9천 명, 요녕성 24만 1천 명, 길림성 114만 6천 명 등 세 성에 모두 177만 6천 명이 거주하고, 동북 3성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48,644명으로 파악되어 약 13%의 조선족이 내몽골을 포함하여, 중국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또한 2004년 민족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선족의 도시화 비율은 45.7%로 중국 전체의 23.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아래 표 참조).

과연 그러한가? 현지에서의 취재라는 불완전한 통계에 기반을 둔 흑룡강신문의 2005년 특별기획에 의하면,¹¹ 2000년 이후 조선족의 인구 및 지역

표 3 | 조선족의 도시 거주 비율

	현급시市區 이상	시진市鎮	농촌	합계
인구(명)	882,308	310,174	731,360	1,923,842
비율(%)	45.7	16.2	38.1	100
중국전체(%)	23.5	13.4	63.1	100

출처: 중국통계출판사, 민족통계연감(2004)

거주 구분을 보면 대략 중국의 31개 성급(성, 직할시, 자치구)지역에 모두 분포하고 있다. 전통적인 집거지역인 동북 3성과 내몽골에는 약 120만 명인 약 60%의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40% 이상의 조선족이 동북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국거주자를 약 2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¹² 약 12~3% 이상이 외국에 거주하는 특수한 상황이며, 그 결과 관내지역에는 27~8%의 조선족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0%가 동북 3성 이외에 거주한다는 것은 2000년 인구조사에 근거한 13%보다 3배 이상의 거주를 보이는 것이어서, 매우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는 호구와 실제 거주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 조사에서 산둥성 거주 조선족은 2만 8천 명 정도로 파악되었으나, 흑룡강신문의 2005년 조사에 의하면 약 18만 명으로 5년 만에 무려 15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는 5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 아닌 호구와 실제 거주 차이에서 나타난 차이이다.

인구 통계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각 신문사 및 학자들이 서로 다른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12 2009년 현재 약 37만 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미 결혼과 귀화 절차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7만여 명을 더하면 4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진출한 경우도 약 20만으로 추정됨으로, 비록 2005년의 조사이기는 하지만 흑룡강신문사의 조사도 상당한 오류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 중국통계출판사 편, 중국민족통계 : 2000 참조.

11 중국의 호구(호적) 제도는 한국과는 달리 이주가 제한적이며, 호구(호적)를 옮기지 않고 중국의 연해 도시 등에서 사업과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류상 거주지가 중심인

또한 도시화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의 도시화를 얘기할 때 어떤 도시로의 이동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전체적인 도시화로 말할 때 외국에 거주하는 24만 명(2005년 홍콩강 신문사 추정치)을 제외한 175만 명의 조선족 중 연해지역의 도시에 거주하는 자는 약 50여만 명, 그리고 동북 3성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는 약 4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90만 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이는 외국거주자가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합계 약 115만 명으로 인구비례로 볼 때 6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통계에 나타난 현급 시구 이상과 시진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이다. 결론적으로, 개혁개방 전 95% 이상의 인구가 농촌에서 거주한 것에서, 20년 만에 농촌 거주자는 4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도시화는 중국 전체로 보았을 때 중국 동포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는 이주와 함께 이루어지는 도시화가 전통적인 조선족 집거지의 해체와 민족교육의 쇠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족이 연해 지역으로 그리고 해외로 이주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의 중국 이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한국인은 중국에 사업, 유학 그리고 기타 이유로 거주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공식통계로만 40만을 넘어서고 있다.¹³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80만으로 추정되고 있고, 2010년에는 100만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중국한국인회에 따르면,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은 북경 10만 명, 청도 7만 명, 상해 5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13 최근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중국 장기 체류자가 일시 축소되고 있는 등 대내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 거주자격별 중국 체류 현황은 www.korean.net 자료실 재외동포 현황 참조.

최근 한국인 이주가 급증하고 있는 상해의 경우, 2003~2005년까지 중국 전체에서 한국인 체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며, 2010년 세계박람회 때까지 상해지역의 한국 교민이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듯 한국인이 상해에 몰려드는 것은 상해가 아시아 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으로, 유학생 위주로 3~4년 정도 단기 체류하고 돌아가던 것에서, 영구 정착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특히 기업체 주재원이 4~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체류하면서 장기거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공식적으로 이민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적 취득이나 영주권 개념이 없고, 외국인이 매년 1년짜리 거류증(일종의 비자)을 다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거주한다는 것은, 한·중 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 물론, 한국인의 제 1 관광국 역시 중국이며, 매년 800만 명 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인 유학생이 비율이 가장 높다. 이런 점은 중국 내 한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에는 통계상 190만 조선족과 80만 재중한국인 등, 약 270만 명 정도의 한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새롭게 이주하는 중국 내 한국인은 신선족新鮮族으로 불리기도 한다. 반면 조선족은 한국으로, 해외로, 그리고 중국 연해지역과 대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또한,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추세는 한국인과 기존의 조선족이 주거 지역면에서 상호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동포의 이주 자체가 한국기업들의 진출에서 비롯된 면이 크며, 한국인 사회와의 상호 협력이 다양하게 결합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중 한국인 사회의 장기 거주와 경향과 함께 조선족 사회도 새로운 형태의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주의 추세와 현상은 중국 동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점

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접근은 상호이해 교육을 통한 동질성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호 이해는 한국 체류 37만 중국 동포와 한국인과의 상호이해 교육과도 연관되어 있다.

2. 교육방면의 새로운 현상

교육 방면에서도 한국 청년들의 중국 유학과 연수는 2000년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 말에는 6만 4천여 명에 이르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는 등 한국은 중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낸 나라¹⁴가 되었다. 또한, 재한 중국 유학생 역시 2004년 8960명에서 2007년 3만 3650명¹⁵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방문취업제의 도입 등으로 인해 중국 동포 학생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진학과 취업에 있어서의 국가적 경계가 급속히 세계화되고 있고, 특히 이런 현상은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모두 나타나며, 동포 사회와의 연관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교육방면에 나타난 현상 중 특이한 것은, 여러 한민족이 이주를 거듭하면서 동시다발적 거주를 하는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동포 사회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서도 소위 탈북자 가정의 존재와 조손(祖孫)가정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탈북자 가정이란 주로는 북한 여성이 중국 내에 불법 거주하면서 중국동포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생활하는 가정이다. 한국 및 연해지역으로 중국동포여성들이 이주하면서, 농촌에서는 탈북 여성들이 그 간극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그 수는 많지 않다고 하나 특성상 파악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다. 또한, 조손가정의 증가란, 부모가 타 지역에 가서 일을 함으로 인해 조부모에게 맡겨져

자라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모 일방이 한국 국적자인 중국동포 자녀들의 존재이다. 현재 7만여 명의 중국동포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의 취업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중국의 부모에 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국적자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 국적자인데, 중국의 소수민족 교육체계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재외동포 교육체계 중 사실상 재외국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적 동포의 교육체계 속에 있는 것이다. 국적, 거주, 교육의 복잡화는 세계화 시대의 한 특징으로, 세계화 시대 이주의 증가, 특히 중국동포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 속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중국 조선족 교육의 대안과 한국과의 협력

중국의 조선족 교육 환경은 세계화, 민족화, 이중화, 전문화¹⁶의 방향에 맞춰져 가고 있다. 즉, 중국의 WTO 가입과 교육 시장 개방¹⁷, 사립학교의 부상¹⁸으로 표현되는 “세계화”, 중화 민족주의의 강화 및 소수 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민족화”¹⁹, 이중 언어 교학 등 중국민으로써의 자질과 조선족

14 “중국유학 붐, 대부분은 한국인,” 아시아경제, 2008-3-14.

15 “외국인 유학생 5만 명시대…대부분이 아시아출신”, 아시아투데이, 2008-09-24.

16 2003년 12월 요녕성, 2004년 8월 길림, 하얼빈 지역 학교를 고찰하면서 필자가 조선족 교육 환경의 특징을 구분한 것임.

17 박근혜, “중국의 WTO에의 가입 및 소수민족교육에 대한 영향”, 21세기 사회발전과 교육, 2003년 8월.

18 “중국 사립학교 설립 붐,” 세계일보, 2005-7-17. 최근 민간자본에 의해 설립된 베이징 사립 초·중·고교가 지난해 말 현재 105곳에 이른다고 중국 교육부는 밝혔다. 2002년 70곳에서 2년 만에 35곳이 늘었다. 사립학교 학생 수도 4만 5000명을 넘었다.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 설립된 사립학교는 100여 곳. 중국 전역은 1만 곳에 이른다.

19 한정일, “중국 조선족 집중촌 건설현황과 21세기 발전전망”, 길림신문사.

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이중화”²⁰, 외국인 교사 채용을 통한 교육 질 향상과 직업 교육 기관의 특성이 보다 강화되는 “전문화”²¹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조선족 교육 기관이 대응하는 모습 또한 통합 집중 학교로의 결합, 집중촌 학교의 성장, 대안 학교의 확대, 사립 학교의 부상 등 다양한 형태²²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통합 집중 학교는 주변 학교와의 통·폐합을 통해 민족 학교의 존립을 유지하는 형태이다. 길림성 통화현의 동안 학교의 경우, 주변 폐교의 학생을 흡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 부처로부터 약 5억여 원을 조달하여 교사를 신축하였고,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함으로써 학교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집중촌 학교로, 심양시 동릉구 만용 소학교의 경우에서처럼 도시 근교 민족 집중촌이라는 지리적 위치를 통해 집중촌의 점차적인 인구 증가와 학생 수 증가, 그리고 현지 정부 및 기업 등으로부터의 교육 투자를 원활히 유치한 경우이다. 대다수의 조선족 농촌 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되는 경우라면, 만용 소학교의 경우는 새로운 집거지로서 도약의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심양 동광 중학교의 경우에서처럼 학교 안에 인문계와 직업학교가 공존하고 있는 형태로, 고등학교 미진학과 및 부모 출국 자녀의 입학에 용이하게 함으로써 부모 부재로 인해 가중된 열악한 조선족 가정 교육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으로는 사

립학교인 연길시 백산 실험 학교의 경우에서처럼 외국인 교사 초빙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의 구축과 함께 한국 조기 유학생 대거 유치 등을 통해 교육 제정의 안정화도 이루어 낸 경우로, 소, 중, 고, 유학부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다.

이러한 조선족 교육 기관의 대응과 모색,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한국 사회와의 교류 협력과 매우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한·중 수교 이후의 한국과 중국 동포 사회와의 교육 교류는 크게 일반 후원, 결연 교류, 프로그램 후원, 투자 및 합자 진출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 후원은 도서, 컴퓨터 등 물자 지원, 후원금 지원,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교류 형식이며, 결연 교류는 청소년 공동 캠프, 교사 파견 활동, 백일장 행사 등의 공동 주최 등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프로그램 후원 방식은, 민족학교 홈페이지 구축 지원, IT 직업 훈련 지원 등 지속적 순환 프로그램을 한국의 기관·단체에서 직접 기획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인 합자 및 투자 진출 교류는, 연변 국제합작기술학교, 흥안소학교 세계문화교류원 교육 센터 등 현지 교육 투자를 통한 교육 교류 추진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영역의 교류,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단위 사업별로 산별적이고 연관성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간 영역의 교류로써의 긍정적인 기여도 하였지만, 많은 한계와 문제점도 던져 주었다.

이렇듯 한국 사회와 중국 동포 사회와의 교류는 몇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단절되어 있었던 상황에 따라, 종교, 기업, 학교, 민간 단체 등이 교류의 주체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고, 다양한 인적 관계를 통한 학생 교류, 교사 교류, 학교 교류가 상호 초청, 연수, 진학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또한, 세 번째 특징으로 물자 지원, 장학 사업, 행사 후원 등 다양한 교류 형

20 최근 조선족 교육 기관에서는 기존의 조선어 중심 교학을 조선어, 한어 이중 언어 교학형태를 병행하기를 권장하고 있고, 취업과 관련한 조선어의 부족한 면을 한국어 교재로 보충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21 중소학교 교사 선발 자격이 기존 사범학교 졸업자에서 사범대학 졸업자로 자격이 강화되면서, 교육학 전공 및 석사학위 교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2 동북아평화연대, 조선족 학교 고찰 보고(조선족 교육 자료 모음), 2004년 3월.

식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민간 교류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민간으로서 긍정적인 기여가 이루어진 반면, 한계성과 문제점도 뚜렷이 드러났다. 즉, “어려우니까”, “같은 동포니까 돕는다”는 감성적이고도 일회성 단순 지원 형태가 많았고, 비슷한 학술 대회, 교육 행사 등을 한국 측 요청에 따라 반복적으로 동원하여 진행한 전시성 행사가 많았다는 점이 부정적 측면이다. 또한 이러한 단순 지원과 전시성 행사로 인해 실제 교육 환경에 대한 기여는 미비하였고, 단기성 교류로 인한 상호 신뢰 상실과 교류의 목적성 부재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지난 10여 년간 교육 교류를 진행한 것에 비해 상호 기여도는 너무도 미비하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상호 이해를 위한 교류 협력이 많이 진전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적인 이주의 가속화와 세계화의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중국동포와의 상호 이해는 필수적이며 이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교육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교육은 장래 다문화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의 수행이 기대된다.

4. 동북아 교육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촉진과 공생

1) 동북아 교육 교류 환경

최근 중국어 열기와 함께 한국에서 일고 있는 중국으로의 각종 언어 연수와 유학생 증가는 새로운 한·중 관계에 발 빠르게 대응한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즉, 유학생의 현지 부적응, 진학 및 취업 연관성 미비, 과도한 유학 비용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중국어·문화 연수에 대한 안정적인 방향성이 갖추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으로의 무분별

한 언어 연수와 조기 유학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적 측면인 교환 학생, 청소년 단기 언어·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즉, EU 교육 협력 모델에서처럼 진학과 취업이 보다 자유로운 형태의 동북아 교육 협력 모델로 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중 간 교육 격차 문제의 해결과 함께 진학, 취업의 제도적 연계성이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다언어·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²³을 통한 부드러운 접근과 교환 학생, 교사 공동 연수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통해 교육 수준의 내용적 소통, 공동 교재 개발 등 교육 기능의 동질성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인구 이동과 학생 수 감소, 교육 재정의 악화 등 조선족 학교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교들의 사례에서처럼 몇 가지 발전 모델들이 생성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긍정적인 측면인 다언어 환경을 우선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조선족 학교의 외국어 학교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즉, 조선족 학생은 한족 학생에 비해 수업 시간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매주 8시간씩 한어, 6시간씩 민족어, 4시간씩 영어를 소학교 고학년에서 배우고 있다²⁴. 이러한 다언어 학습 환경은 외국어 특성화 학교로서의 긍정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 싶다.

한편으로, 조선족 학교 어느 곳이든 쉽게 한국 국적 학생을 발견할 수 있다. 조기 유학을 보낸 경우와 한국인과 결혼한 어머니가 고향에 아이를 위탁하는 경우 등이다. 연길시 백산 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조기 유학생이 200

23 2004년 7월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후원으로 중국 연길시 백산 실험 학교에서 개최된 제 1회 동북아여름학교와 2002년부터 매년 여름에 열리고 있는 동북아청년캠프 등은 공동 행사 성격으로 준비되고 진행된다. 이러한 공동 행사 프로그램의 개발은 상호 교육 기반을 긍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다문화·언어 체험의 다양한 형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24 2004년 해외인터넷청년 봉사단 조선족 학교 고찰 보고서, 2004년 8월.

여 명을 웃돌고 있으며, 산재 지역 농촌 조선족 학교에서도 한국적 학생이 외가에 와 공부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²⁵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족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 이동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편, 조선족 학교의 다언어·문화 환경이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적 장벽과 민족적 갈등이라는 복잡한 과거사로 얽혀 있는²⁶ 조선족 교육 기관을 다언어·문화 환경의 교육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영어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중국 등지의 교육 교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교류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교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연길 백산 실험 학교의 사례에서처럼 학생 모집에 대한 경계를 한국으로까지 넓혀 조선족 학교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여겨진다. 다만 현재적 과제인 청소년의 진로와 취업 환경에는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²⁷가 있다. 즉, 교환 학생이나 교사 파견 등 공적 교육 교류에 담아낼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제도화 방안이 요구되며, 교육 비용 증가를 최소화 나갈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조선족 교육이 안정적으로 협력·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시범 학교”와 “교류 협력 자매 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EU와 미국 등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교환 학생 프로그램과 가정 체류 협력 네트워크는 청소년에게 다언어·다문화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교육 공유를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럼으로 EU와 미국 등지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한국과 조선족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민족 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언어·다문화 환경의 안정적 정착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특히, 중국의 많은 조선족 학교가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새롭게 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고, 한국 역시 조기 유학 등의 병폐와 공교육 불신에 따른 안정적 교육 모델 개발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민족 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의 상호 보완적 요소를 발굴·실행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으로써 부각되고 있다.

2) 중·장기적 교육 교류 시스템 구축

한국 사회와의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선족 사회의 교육 발전 동력은 이렇듯, 다언어·문화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조선족 사회의 교육 기반에서 주목받는다. 즉, 교류의 성격을 네트워크 구축을 축으로 하는 다양한 방식의 기반 공유 교류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지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 교사 모국 연수나 학술대회 참가, 교육 물자 지원 등이 우호적 교류 협력망²⁸으로 이어져 중국 조선족 사회의 교류 협력 발전 동력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5 위 보고서의 백산실험학교는 한국에 중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어 학원을 통해 조기 유학생과 언어 연수생을 백산 학교에 받아들이고 있으며, 북경으로도 교육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중국 조기 유학 열기라는 시대적 혜택을 교육의 영리적 기능을 통해 받고 있는 것이다.

26 최근 중국의 집안集安 고구려 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동북 공정을 통한 역사 왜곡이 배제되지 않고 있으며, 조선족 사회는 이중 정체성의 갈등 선상에 있다.

27 “베이징대 졸업장도 ‘취업 무용지물’”, 한겨레신문, 2009-06-25.

28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나 재외동포재단의 교사모국연수 등 한국과의 관계에서 교육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 도서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 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우리말 도서 지원과 언어 환경 구축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적 공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조선족 학교의 긍정적 환경인 다언어(한어, 민족어, 영어)·문화 환경과 정보화 환경 지원을 구체화하는 한국적 접근 방식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것의 형태는 동포 교육 지원 단체 간 공동 사업의 확대와 규모화, 그리고 상호간의 교육·문화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논의로써 협력 방안을 마련해 갈 수 있다. 즉, 교육 교류, 지원 단체의 개별 단위 사업들이 상호 보완적, 협력적으로 결합하여, 교육 연수 및 프로그램 실행 교류 ⇒ 거주국 교육 기반 지원 ⇒ 연구 조사 ⇒ 교육 협력 연구 ⇒ 교육 연수 및 프로그램 실행 교류 등의 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단순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뿐 아니라, 영리적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표적 영리 법인 어학원인 (주)시사와 학습지의 대교 눈높이 등도 한국에서의 성공한 교육 모델을 중국에 적용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국에 중국어 학원과 유학 알선 영리 법인 형태를 점차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영리 법인의 상호 진출과 성장은 한국과 중국 교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진출 한국 영리 법인의 경우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많은 소모전을 치르고 있어 중국에서의 정착 문제는 아직까지 성공 사례가 뚜렷이 나오고 있지 않다. 한국 진출 중국 교육 영리 법인 역시 한국 교육 수혜자의 욕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양적, 질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교육 교류 협력이라는 틀에서는 교육의 질적, 양적 확산을 가져올 영리적 법인과의 협력 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즉 지원·교류 사업에 있어서 영리 법인의 기부와 참여를 제공하고, 공적인 교육 네트워크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교육 공동체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가령 건국대 사례는 영리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시도로 보여 진다. 건국대는 요녕성 심양 조선족 1중, 그리고 천진의 잉화英華 국제 학교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한국 대학 진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장학금 등의 형태로 건국대로 유치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점차 학생수가 줄어드는 한국 대학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고, 동포 학생에게 모국수학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한족 학생에게도 한국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래 교육 시장의 개방과 다문화 동아시아의 대비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III. 요약과 결론

한국의 다민족·다문화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국제적 관점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즉, 동아시아 차원에서 현재 나타나는 다문화 양상은 인간의 이주에 따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를 국내적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으로의 이주자 중 중국인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이 절반 중 중국동포를 포함한 동포들의 한국 이주가 한국 다문화 사회 형성의 중요한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외국인에 대한 상호 이해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는 먼저 혈연적으로 친근성이 있고, 문화적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동포에 대한 상호 이해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포와의 상호 이해가 결여된 다문화 이해는 어색하다.

한편, 현재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이주는 중국 동포가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이주의 성격은 조선족의 한국으로의 이주뿐 아니라, 한

국인의 중국으로의 이주, 그리고 이들이 한·중 양국에서 공동으로 집중 거주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집거는 교육에서도 여러 새로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동포와의 공동 정체성의 모색, 또한 범위를 넓혀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공동체적 정체성의 모색 같은 목표에 중국의 동포사회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포에 대한 상호이해 교육은 한국 다문화 교육에 있어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여러 교류·협력 모델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재석(2008). 방문취업제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 **이민행정연구회 M. Paz 워크숍 자료집**.
- 김현덕(2007).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관계정립을 위한 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제2호**.
- 박금해(2003). 중국의 WTO에의 가입 및 소수민족교육에 대한 영향. **21세기 사회발전과 교육**.
- 박광성(2006).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노동력이동과 사회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진영(2008). 다문화 다민족 한국 사회와 중국동포 **이민행정연구회 M. Paz 워크숍 자료집**.
- 한건수(2007). 비판적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모색을 위한 인류학적 성찰.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전망**.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위임. 동년.

자료

- 중국통계출판사(2000). **중국민족통계**: 2000.
- 중국통계출판사(2004). **민족통계연감**.
- 2004년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2004). **조선족 학교 고찰 보고서**.
- 동북아평화연대(2004). **조선족 학교 고찰 보고**.
- 인하대학교 이주 및 재외동포센터(2008 미간행). **방문취업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동포 만족도 조사**.

Abstract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Formation of Educational Network with the Korean-Chinese Society

Lee, Jeanyoung · Kim, Panjoon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ddress that formation of educational network with the Korean-Chinese society is an essential task for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an emerging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Korea is regarded to enter into the stage of multi-cultural society. However, more than 40 percent of the foreign residents in Korea is a special group, called 'dongpo' or overseas Korean returnees. Therefore, understanding the 'dongpo' who come from various countries, seems to be the first step for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mong them, Korean-Chinese(Chosonjok) has a special feature. They are migrants across national borders between China and Korea, and have made their own distinct societies with South Koreans in China as well as in Korea. Therefore, to understand Korean-Chinese is not only to understand a feature of multi-cultural society of Korea, but also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with China in East Asian level.

This paper is to illustrate various methods to make educational network for better understanding with the Korean-Chinese. From formation of the educational network, both sides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and promote mutual interests. Also, this method should be a basis of a new policy for the overseas Koreans as well as of the mutual understanding education in Korea.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educational network, Korean-Chinese, mutual understanding education, policy for the overseas Koreans